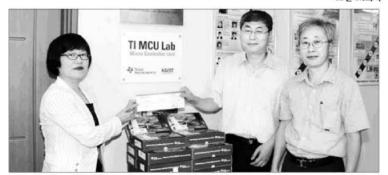
ETNEWS.co.kr

전자신문 2010. 7. 23.

전자신문

2010년 7월 23일 (금) 09면 IT, 과학



유해경 TI 한국지부 반도체 영업부장, 유회준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와 박현욱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장(왼쪽 부터) 이 지난 21일 TI랩 현판식을 개최했다.

'뇌 닮은 CPU' 개발 첫단추

유회준 KAIST 교수팀 TI랩 선정 현판식

대전=박회범기자 hbpark@etnews.co.kr

루먼트(TI)램으로 최근 선정돼 차 하고 지난 21일 TI 램 선정 현판식

세대 CPU 개발에 착수했다.

I는 유회준 교수 연구실 측과 '사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유회 람의 뇌를 모방한 매니코어 프로 준 교수 연구실이 텍사스 인스트 세서 칩 개발'을 위한 협약을 체결

매니코어 프로세서는 10개 이 상의 코어를 탑재해 만든 프로세 서로 싱글코어에 비해 처리 속도 가 빠르고 전력 소모량이 적은 장 점이 있다.

유회준 교수는 "최근 하나의 칩 미국 종합 반도체 생산업체인 T 에 수십 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집 적하는 미래형 CPU가 인텔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 다"며 "인텔 기술을 뛰어 넘는 새 로운 CPU 기술을 개발할 계획"이 라고 말했다.

> 유 교수 측 연구진은 이미 적은 면적에 계산 속도가 뛰어난 아날 로그 회로와 전력 소모가 낮고 정 밀도가 높은 디지털 회로를 하나 의 침에 집적하는 혼합형 회로를 통해 인체의 뇌를 모방하는 신경 회로망을 설계, 지능형 감시 카메 라와 로봇 및 자동차 등에 적용하 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.

